

01 교회소식

진리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전 세계 만민을 푸른 초장과 맑은 사냇가로 인도하고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은 영적 주의 종과 일꾼 양성에 힘쓰는 우리 교회.

02 생명의 말씀_ 지혜 시리즈 8

화평으로 맺는 의의 열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악을 버리며 성결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힌다.

03 기획특집

발람 사건이 주는 교훈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사심과 욕심을 좇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까지 멸망으로 이끈 발람이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04 간증

“참 목자를 만나 축복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투자전문가 고성열 장로와 엔라세 방송에서 이재록 목사를 만나 축복받았다는 콜롬비아 마리아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22호 2014년 2월 2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참된 주의 종과 일꾼 배출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 다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주의 종과 일꾼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오늘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참된 목자의 마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사진은 설교를 담당한 MIS 총장 정구영 박사①, 축가를 담당한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천상의소리선교단②, 졸업생 일부③, 상을 수여하는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박사④).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전 세계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증거할 참된 주의 종과 일꾼을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13일에는 연합성결신학교 및 MIS(만민국제신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MIS 총장 정구영 박사는 ‘나의 택한 그릇’(행 9:15)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자존심과 우월의식이 강한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사도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전제한 후, 세 가지로 설명해 큰 은혜를 끼쳤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 둘째로, 그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나 죄수의 몸이 돼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셋째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실까를 생각했다. 감옥에서조차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생각했기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도 도망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전도해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신을 택해 주신 은혜만으로 로마에서 순교의 칼을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는 데 목자의 마음을 품고 평생 사역할 수 있는 졸업생들이 되기를 당부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으로 사역하기 위해 준비하는 재학생 및 입학할 준비하는 학생들은 말씀 무장과 기도에 주력하고 있다.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행 6:4)한 것처럼 앞으로의 사역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신학교 방학 기간임에도 성경 읽기 및 암송은 물론, 말씀을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무장하며 이를 토대로 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고 토론 및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교대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다니엘철야’ 기도회 외에 개인 기도로 하루 3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적인 말씀 무장에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일궈 주님 닮은 영의 마음을 이뤄가는 것은 물론, 오직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함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어디서든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오중복음을 사모하는 주의 종과 일꾼들은 인터넷을 통해 MIS(www.manminseminary.org)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인터뷰

“신속히 권능의 종으로 나와 고통받는 영혼들의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류순주 교육전도사

신학교에 입학해 보니 훌륭한 교수님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고 매우 헌신적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장이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시고 재정을 아껴서 저희에게 학비뿐 아니라 용돈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참된 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저는 단지 주신 은혜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자님과 성도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목자를 닮은 권능의 종으로 나와 그 사랑을 전하고 특히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 고통받는 영혼들의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영육 간에 갖춰진 참된 종이 되기 위해 쉽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소영 교육전도사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 주고 이끌어 주던 신학교 생활은 천국의 삶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못내 아쉬워하지만 이제는 영혼들을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다른 부푼 기대를 안고 졸업합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신학생들과 함께 서로의 기도하는 모습을 체크해 주고 심방 시 예상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또 대대교구장님이나 앞서가신 영의 주의 종님들의 심방을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장이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30시간의 교육을 통해 신학생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사항에 대해 영적으로 세세하게 풀어 주셨지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권능의 목회자가 담임하는 세계 최고의 제단에서 사역하는 종으로서 영육 간에 온전히 갖추기 위해 쉽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8)

화평으로 맺는 의의 열매

데 막상 가까운 사람이 어렵다며 보증을 서 달라고 하거나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차마 뿌리치지 못하지요. 이는 지혜가 없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다가 원수 맺는 일도 생기지요. 사람과의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보다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유익을 구해 타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평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사람과의 화평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룸으로 크게 영광 돌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금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왕과 화평을 이루려면 우상 앞에 한 번만 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중요시했기에 사람과의 화평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평소보다 칠 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니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지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에서는 미움, 혐기, 시기, 다툼, 간음, 욕심 등 마음에 많은 악이 있어도 행위로 범죄하기 전에는 불의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범죄하지 않아도 마음에 악이 있으면 불의하다 하시지요.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흠 없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다를 때는 반드시 하나

님의 의를 택해야 합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사상에 절하거나 점을 보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풍양속인데 어떤가?”, “절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 가정복음화의 길이 막힌다.”고 합니다. 이는 영의 세계에서 원수 마귀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수 없으니 가정복음화는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한 대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룰 때 사람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고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면 그 화평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며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을 택할 뿐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도 선한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히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일 뿐 아니라 온 집에 충성하고도 연관됩니다. 온 집에 충성은 내가 속한 모든 분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섬김과 희생, 사랑과 덕으로써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3.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

모든 인류는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원죄를 이어받아 죄인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지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행함 있는 참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죄악을 벗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이뤄 나가야 합니다.

만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또다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해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더 이상 화평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속히 모든 죄악을 벗고 항상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점점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등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며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악을 버리며 성결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이 항목들을 마음 깊이 새겨 사람들과의 화평은 물론,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며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어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했습니다. 이어 18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지요. 17절에 나오는 ‘화평’은 주로 사람들과의 화평을 의미하고, 18절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항목들을 다 이루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화평케 하는 자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화평만 생각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를 어기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 흔한 예가 보증을 서는 일이나 돈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잠 22:26),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 13:8)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공요철차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물질에 현혹되어 하나님 뜻을 저버린 술사 발람

발람 사건의 역사적 배경



모세 선지자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애굽에 내린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는 등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 그럼에도 참 믿음을 갖지 못해 그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 여정의 종착지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된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앞서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심히 두려워하며 번민한다. 고민 끝에 발락 왕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통해서 발람에게 예물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자신들이 승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신다. 발람은 하나님 뜻을 좇아 모압 왕의 요청을 거절한다. 하지만 발락 왕이 다시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 존귀케 하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으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내 현혹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자유 의지에 맡기신다. 발람

의 마음에 사심과 욕심이 가득했기에 설령 지금 막는다 해도 더 큰 재물과 명예 앞에 또다시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발람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좇아 발락에게로 향하고 만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사자를 보내어 발람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깨우쳐 주시되 그 길을 막지 않고 경계의 말씀을 주신다.

민수기 23~24장에 보면 발락 왕의 귀족들과 같이 모압으로 간 발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알았기에 그 뜻에 따라 일곱 단을 세우고 숫양과 수송아지로 제단을 쌓았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 나왔고, 이런 일이 세 번 반복되자 발락 왕은 진노해 발람에게 돌아가라고 한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강성함과 주변 나라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고 돌아간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 행음하므로 이만 사천 명이 염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이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처럼 악한 궤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한 발람은 결국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만다.

성경은 하나님 뜻을 알고도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끈 발람에 대해 “...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벧후 2:15~16) 했으며, “...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 했다(유 1:11).

발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이유

발람은 브돌 강변에 사는 브올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알았다. 그는 단지 그 길을 알아 필요에 따라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성경은 ‘술사 발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수 13:22).

그렇다면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서도 보면 신(神)

을 잘 접하는 기(氣)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무당이 되기도 한다. 귀신도 그런 세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발람에게도 그런 기가 충분히 있었고, 이런 기 속에 하나님을 접하는 법을 깨우쳐 그 방법대로 교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발람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람 곧 성결된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들이 교

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한다. 깊고 비밀된 것들도 교통하고 구하면 항상 응답을 받는다. 하지만 발람은 그 교통함도 방법에 따라 구해야 했고, 구한다고 해도 그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깊고 비밀한 것은 알 수도 없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발람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발람 사건을 통해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신속히 버려야 함을 깨우쳐야 한다. 마음에 사심, 욕심, 비진리가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안다 해도 쉽게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람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았기에 발락 왕이 보낸 예물을 뿌리치고 사신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는 더 높은 귀인들을 보내며 자신을 존귀케 하고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준다는 말에 현혹된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같이 가지도 말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민 22:12).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시 여쭙 필요도 없고 이들과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발람은 사심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발락 왕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진리가 싫고, 누가 날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도 깊은 마음에 죄악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 안의 비진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마음 안에 악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발동한다. 따라서 단지 누가 나를 미혹할까봐 그것을 주의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인 마음 안에 내재된 죄성과 악의 모양을 버려야 한다.

“엔라씨 방송을 통해 참 목자를 만났어요”

엔라씨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사)을 통해 매 주 일 아침,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노라 했지만 마음이 늘 곤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기쁨이 임했습니다. 콜롬비아에도 만민 지교회가 세워지길 고대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당회장님 설교를 시청하면서 콜롬비아 만민교회 주소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 거리이지만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은 아주 가볍고 행복했지요.

2012년 6월 24일, 교회 등록 후 당회장님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중한 질병을 앓았으나 하나님께 단번에 치료받고 오직 믿



마리아 헤마 씨에라 산토스 성도 (콜롬비아만민교회, 74세)

음으로 이뤄 오신 선교 사역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지요.

저는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가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부담하게 책정돼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 누적된 것입니다. 법에 호소하며 여러모로 시정해 보려 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장정연 담임 목사님과 상의했더니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꾸준히 기도해 오던 중, 적정 관리비만 분납하게 됐으며 수년간 누적된 관리비의 이자도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북성 B/D 7층 ☎062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1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1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4 ☎0621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302호 ☎0621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1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1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1/3 ☎0521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번지 ☎031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3층 ☎041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1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1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201호 ☎0431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1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1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1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3층 ☎0551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1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1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1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10호 ☎0541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1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1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1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1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1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1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1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1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2층 ☎0331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1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1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1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1863-9857, 010-7127-2073
- 광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1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1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21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1840-2906, 010-8163-1537